

제주땅 이곳저곳 문화 속살을 찾아



‘나의 문화유산답사기7-돌하르방 어디 감수광’ 유희준 지음



“그저 풍경을 둘러보는 데 그치는 게 아닌, 뭔가 남는 여행 없을까.”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여행을 떠나기 전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무척 많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모처럼 시간을 내 가는 여행인 만큼 여행지 선택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보는 재미’ 뿐 아니라, 현지 문화와 관련 역사를 조금이나마 깊이 있게 접했으면 하는 ‘육심’이 대단하다. 물론, 막상 여행을 떠나고보면 짧은 일정을 핑계로 한 장짜리 여행 지도만 뒤적이며 ‘찍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수많은 돌하르방 중에 어떤 게 민속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오리지널’인지 체계적인 안내 정보가 미흡한 것도 한 요인이다.

유희준 명예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7’ 제주편은 그런 면에서 썩 괜찮은 안내서 역할을 한다. ‘돌하르방 어디 감수광’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 한 권만으로도 제주도의 다양한 문화 속살을 들여다볼 수 있다. 저자 스스로도 “자동차를 빌려서 제주 속살에 다가가고 싶어하는 육

자인, ‘제주허씨’들을 위한 안내서”라고 밝혔을 정도다.

여기에 “너무 유명해서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나 가봤자 실망 또는 기분 나쁜 일을 당할 곳”은 제외해 안내하는 ‘진절할’도 갖췄으니 제주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책을 읽어볼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물론, 지난 1993년 나온 1권부터 지난해 발간된 6권까지 모두 300만 부 넘게 팔려나가면서 인문서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한 만큼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검증도 받았다.

제주편은 제주도를 크게 제주답사 일번지, 탐라국 순례, 제주 서남쪽, 한라산 뒷새오름 등반기, 가시리에서 돈내코까지 등 다섯 곳으로 나눠 자연 풍경과 문화유산, 그에 얽힌 역사 속 뒷얘기를 풀어나고 있다. 제주 시내 구실밭나무가 로수가 담팔수로 바뀐 사연이나, 남편 바람났다 거너에 낳았다는 등 제주 여인네들 영혼의 동사 무소 역할을 하는 본향당(本郷堂), 한때 3만명에 달했다는 해녀 얘기, 지금도 상당수 제주도민들이 이사하거나 집을 고치려면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3일 이내에 해야 할 일이 없다는 민간 신앙을 지키는 이유 등은 눈에 띄게 짙다.

내용 대부분이 제주 고유의 민속 문화를 중심으로 제주 사람의 체취를 생생하게 담아낸데다, 유교 특유의 구수하고 걸쭉한 입담으로 들려주는 제주 민담 등이 버무려져 읽어갈수록 책장을 넘기는 속도가 빨라진다.

한라산 산전단 주변 천연기념물 160호로 지정된 평균 30m 높이의 곰솔 여덟 그루를 바라보며 보호하겠다며 그보다 높이 피뢰침 철기둥을 세우는가 하면, 이명박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내린 국립박물관 무료 입장으로 나라 문화유산의 권위와 자랑을 모아놓은 박물관이 어린이 놀이터로 변해버렸다는 한탄 등 갈 길 먼 문화재 행정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짚는다.

제주에 살아 있는 광장이란 관덕정을 방치하거나 제주목 관아에 시민들의 숨결을 불어넣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식 부족에 대한 의견도 드러낸다.

열 장 중 여덟 장 꼴로 직접 찍은 사진들을 첨가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책은 저자의 제주를 향한 애뜻함을 엿볼 수 있다. 수십만원의 비행기값과 숙박료, 자동차 렌트까지 꽤 많은 비용을 들여 간 여행 뒤 밀려오는 짜증스러움도 다소나마 덜어줄만한 책이다.

〈참비·1만8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쟁·공포·이념... 예술가 눈에 비친 세계사

‘세계 명화 속 역사 읽기’

플라비우 페브라로 외 지음

병사들 앞에 선 벌거벗은 여인과 아이들의 얼굴은 두려움에 일그러졌다. 병사들은 모든 감정을 격리시키는 듯한 철모를 쓰고 로봇처럼 냉담하게 사람들에게 총구를 겨눈다. 병사 맨 뒤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지휘자가 발포를 재촉한다.

파리 국립 피카소 박물관에 소장된 피카소의 ‘한국에서의 대학살’이라는 작품은 세계적으로 자행된 전쟁의 폭력을 묘사했다.

전쟁으로 사람들이 겪는 공포, 인간을 살인기계로 만든 당시의 이념 등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플라비우 페브라로와 부르크하르트 슈베제는 ‘세계 명화 속 역사 읽기’를 통해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술가



의 시각을 분석하고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문구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부터 전쟁이 가져온 파괴력과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에 가려진 폭력성을 함축적으로 묘사한 피카소의 ‘게르니카’ 등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작품들을 연도순으로 정리해 보여준다.

예술과 역사 사이의 복잡한 관계, 예를 들면 권력자들이 예술을 통해 자신의 업적을 어떻게 미화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는가 하면, 역사의 폭력성·잔혹함을 고발하는 작품과 사회에 만연한 불안감 등은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분석해낸다. 풍부한 화보와 그림을 곁들이면서 예술이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재해석했는지 작품으로 쉽게 알 수 있다. 〈마로니에북스·2만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부 정책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존 스토크 지음

경기 침체가 바닥을 칠 줄 모르고 서민들은 팍팍한 삶에 어깨가 짓눌린 지 오래다. 실업자는 늘고 중산층은 무너지고 빈부격차는 커져만 간다. 그럴수록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는거야?”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질 줄 모른다.

미국 언론인 존 스토크가 펴낸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는 정부에 대한 환상을 깰 것을 권한다.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것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는 게 저자 주장으로, 정부 정책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책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정부 정책이



최선이라고 믿어버리는 직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례를 들며 제시한다.

예컨대 ‘정부와 노동조합의 중재가 없으면 노동자는 개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현실에서는 ‘노동조합이 정부 안의 비호세력과 손을 잡으면 소비자와 납세자는 물론, 결국에는 조합원에게도 해가 될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풀어내는 식이다. 모두 13개의 소주제로 나눠 117개의 일반적 생각과 현실에서 주는 가르침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이 자유로운 경쟁사회에 도움이 되는 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에서 책장을 넘겨볼만하다. 〈글로세움·1만7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용기

‘작은 용기, 세상을...’

로라 스캔디피오 지음

흑인이 앉는 좌석을 정해 놓은 버스에서 흑인 좌석에 앉지 않는 평화적 저항으로 맞섰던 로자 파크스,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하면서 비폭력 정신을 설파했던 아웅산 수치 여사 등...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평범하고 착한 시민들이 법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거나 권력에 맞섰던 사례들은 전 세계에서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작은 용기, 세상을 바꾸다’는 주변 불의에 맞선 평범한 사람들의 자치만



특별한 용기를 소개하고 있다. 독일 출신 저자 로라 스캔디피오는 히틀러에 저항한 젊은이들인 백장미단, 핵폭탄 개발을 주도했다가 핵무기 반대 및 세계 평화 운동가가 된 안드레이 사하로프, 흑인 차별정책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선 백인 헬렌 수즈먼 등 7명의 사례를 중심으로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전달한다. 대선을 앞둔 시기, 책에 손질이 가는 이 유다. 〈북스코프·1만2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옛 시절 회상하며 ‘스완네 집 쪽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마르셀 프루스트 지음

‘타임즈’, ‘르 모드’지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책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새롭게 출간됐다. ‘꽃핀 소년들의 그늘아래’, ‘게르망트 쪽’, ‘소품과 고모라’ 등 7권으로 이뤄진 연작소설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중 이번에 출간된 작품은 그 첫 번째 이야기인 ‘스완네 집 쪽으로 1·2’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뒤척이던 주인공 ‘나’가 잊혀진 옛 시절들을 회상하며 어린시절을 보냈던 콩브레 마을과 거



기에서 만난 스완씨와 얽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 마르셀 프루스트의 대표작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이번 번역본은 국내 최초로 ‘프루스트 전공자’인 김희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번역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 한편 민음사는 오는 2013년 ‘스완네 집 쪽으로’ 출간 100주년을 맞아 프루스트 전권 완역 출간을 준비 중이다. 〈민음사·1만5000원, 1만1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신화의 땅·꿈의 발자취... 사유가 있는 여정

‘파타고니아’ ‘송라인’

브루스 채트윈 지음

1974년 11월, 선데이 타임스의 예술 및 건축 담당 기자인 브루스 채트윈은 신문에 ‘여섯 달 동안 파타고니아로 떠남’이라는 전보를 남기고 떠났다. 2년 전인 1972년 인터뷰한 93세의 디자이너 겸 건축가의 자신은 노령 때문에 갈 수 없으니 대신 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뒤다.

1977년 출판돼 파타고니아 여행의 필독서가 된 ‘파타고니아’는 저자가 거기에서 사람들과 겪은 97개의 일화를 기록한 여행기다. 진실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남미 아르헨티나와 칠레 남부에 걸쳐 있는 파타고니아는 채트윈의 책 이후 ‘세상의 끝’, ‘미지의 세계’로 묘사돼 여행자들에게 생애 꼭 가보고 싶은 신화의 땅으



로 선정된다. 그는 영국 문학상 ‘호손턴 상’과 미국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송라인’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애버리니지)들 사이에서 꿈의 발자취로 여겨지는 보이지 않는 길, 세상을 창조하며 걷는 길로 불리는 송라인을 찾아 걸으며 쓴 여행기다.

브루스 채트윈의 ‘파타고니아’와 ‘송라인’이 ‘산책자의 수첩’이라는 시리즈로 나왔다. 데뷔작과 48세로 요절하기 전 마지막 출간했던 책을 함께 엮은 것으로, 저자의 유목민적인 삶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단순한 여행기가 아닌, 사유가 있는 여정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현암사·각권 1만7000원〉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신간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고전 독서법=정민 한양대 국문과 교수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형식을 빌려 전해주는 고전 독서법. 옛 선비들의 책사랑, 독서법, 참고서에 관한 예문을 다양하게 실고 ‘꾸준히 읽어야 힘이 생긴다’, ‘소리 내서 읽어야’, ‘읽으면서 기록하라’, ‘통째로 외우라’,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라’ 등의 독서법을 제시한다. 〈보림·1만3000원〉

▲이 폐허를 응시하라=샌프란시스코 대지진(1906년)을 비롯, 허리케인 카트리나(2005년) 등 99년 동안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발생한 5건의 대형 재난을 연구 조사함으로써 재난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보인 행동을 독특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냈다. 재난 속에서 사람들은 이타주의라는 ‘인간 본성’을 무드러지게 드러낸다는 주장을 설득력있게 제시하고 있다. 〈핀타그램·2만원〉

▲삶의 도구=사진작가 신미식씨가 어머니·아버지의 모습을 담아 엮어낸 사진에세이집. “사진을 담는다는 것, 결국 마음을 담는 것이다”라는 저자 말처럼 흑백 사진 속에는 주름진 피부, 하얗게 센 머리칼라, 굵은 등, 거칠대로 거칠어진 손발 등 부모들의 자식을 사랑하고 걱정하면서 희생했던 증거와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겼다. 나주, 고성, 남양주, 문경, 가평, 의성, 칠원, 강화 등을 돌며 담아낸 이 땅의 부모님의 모습에는 울림이 가득하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께 바친다”고 쓴 저자의 말처럼 한껏 한껏



진정성이 가득하다. 〈프리스마·1만8000원〉

▲옛 지도를 들고 우리 역사의 수도를 걷다=이현근 서울대 국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고구려(집안·평양), 백제(공주·부여), 신라(경주), 고려(개경·강화)의 역사수도 7곳을 답사하고 현장감을 살려 소개한다. 서울 중심 사교와 남북 분단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탈피해 폭넓게 바라보고 있다. ‘역사수도 답사경로’, ‘답사 떠나는 법’ 등도 자세히 전한다. 〈청어람미디어·1만4500원〉

▲소설 하멜=1653년 조선 땅에 표착한 하멜과 네덜란드 선원들의 13년간의 조선 체류기.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가 하멜 일행이 거쳤던 제주·강진·여수·나가사키·압스테르담을 직접 취재한 뒤 ‘하멜 표류기’와 17세기 조선·중국·일본 역사에 관한 책에서 얻은 정보에다 소설적 상상력을 더해 엮어냈다. 〈중앙북스·1만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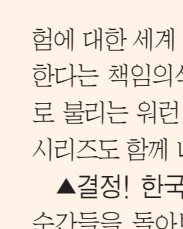
▲세상에 없는 미술관은 사라졌고 변형되거나 훼손된 작품들, 숨겨져 있거나 도난당한 작품, 그래서 현실 미술관에서 보지 못하는 사라진 걸작 40점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존하고 후세에 온전히 물려주는 게 쉽지 않은 일이며 결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닌, 힘든 작업이라는 것을 전달한다. 무게만 2에 달하는 헨리 무어의 ‘오프로 누운 사람’이 10분 만에 도난당한 얘기 등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시그마북스·2만5000원〉



▲위닝소리=영양 출신 이충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팔순 노인인 40살된 늙은 소의 30년 우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위닝소리’를 그림책으로 엮었다. 당시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며 한국 독립 영화사를 새롭게 썼다는 평가를 받은 작품을 섬세한 그림과 함께 담았다. 〈파란자전거·1만1000원〉

▲삼국유사=‘단군신화’ ‘주몽’ ‘박혁거세’ ‘선덕여왕’ 등 민족의 뿌리, 정신을 알 수 있게 하는 이야기 34편을 흥미진진하게 담았다. 원작의 정신은 살리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다듬었고 각 이야기에 어울리는 그림을 실어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했다. 〈아이즐·1만5000원〉

▲소원 필재=우연히 얻은 팔찌 때문에 갈등하는 주인공 리리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냈다. 문방구 아줌마의 실수로 그토록 원하던 소원필재를 갖게된 리리가 자신의 선택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 속에서 ‘양심’이라는 도덕적 가치를 회복한다는 교훈적 주제를 담았다. 〈피랑새·1만원〉



강렬한 색감과 사실감 넘치는 표정의 그림 등으로 눈길을 끈다.

▲Why? 세계유산=세계유산의 개념과 등재 기준을 알아 보고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자연 유산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한국을 비롯, 일본·중국과 캄보디아 등 여러 세계 유산 속에 담긴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한편, 훼손되고 파괴될 위협에 대한 세계 유산을 보호해 후손에게 전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일깨워준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을 소개한 ‘Why? People’ 시리즈도 함께 나왔다. 〈예림당·1만1000원〉

▲결정! 한국사 4=역사 속 수많은 결정의 순간들을 돌아보며 오늘로 이어져 온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는 학습만화책 시리즈로, 조선 중기부터 흥선 대원군의 개혁까지 파란만장한 역사를 속도감있게 그려냈다. 독자 스스로 역사 속 인물이 돼 결정의 순간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해 상상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다. 〈피랑새·1만원〉

어린이 책꽂이